



존 스튜어트 밀의 개별성 제고를 위한 대화 형식으로서의 토론의 자유

박혜경 동국대학교-서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박사 수료

이호규 동국대학교-서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The Freedom of Discussion by Dialogue fo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ty by John Stuart Mill*

Hye Kyoung Park**

(Doctoral Student, Dongguk University-Seoul Dept. of Media Communications)

Hoky Lee***

(Professor, Dongguk University-Seoul Dept. of Media Communications)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reasons for the freedom of discussion by John Stuart Mill. Mill argues that the freedom of thought and freedom of discussion are inseparable. This research po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y did Mill strongly argue the freedom of discussion? To approach this question, this paper looks at the relationship of the promotion of individuality which has been suggested by Mill for both utilitarianism and dialogue. Mill warns the phenomena of conformity to follow the opinions of majority without thinking by themselves in democracy. He wants people to make own judgments by themselves. In order to do that, people have to develop their own intellectual capacity. To have a discussion of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unlike most liberal philosophers, he employs the concept of individuality borrowed from romanticism. The concept of individuality plays a great role in Mill's developing his reasoning for the magnitude of the liberty of discussion. The concept of individuality is the place where individual and society meet together to influence each other. Also, Mill describes that the thoughts are patterned by the language unlike most Enlightenment thinkers. Most Enlightenment thinkers argue that the pattern of thought and the use of language are totally different. However, Mill suggests that the pattern of thought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use of language. In this context, Mill highlights that the freedom of thought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use of language. Therefore, the freedom of speech is very important in guaranteeing the freedom of thought. Furthermore, Mill develops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 익명의 세분 심사자들의 꼼꼼한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 pong3407@gmail.com

*** hokyulee@dongguk.edu, corresponding author

discussion to develop individuality. Through exchanging opinions with others, individual can get the grasp of the shortcoming of his/her own opinions because people have to have bias as well as logical fallacy. Mill says that the dialogue by Socrates has been a remarkable method and epistemology for reaching the truth. Mill highlights that there have been two kinds of discussion, eristic and dialogue at his time. He recommends dialogue rather than eristic communication because eristic communication tries to find out the method to win over others' opinions. However, dialogue tries to find out one's own errors through the comparison with other argu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de of communication, Mill proposes that the freedom of discussion, dialogue, has to be guaranteed to promote individuality. Mill does not put an emphasis on the finding of the truth, rather he highlights the process of going to the truth. In this context, the freedom of discussion based on Socrates dialogue is to reflect the importance of the process rather than results.

Keywords: The Freedom of Thought, The Freedom of Discussion, Individuality, Dialogue

1. 서론

밀의 〈자유론〉¹⁾을 읽다 보면 논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주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밀은 자유론에서 생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토론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밀은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자신에게 관련된(self-regarding) 영역과 타인에게 관련된(other-regarding)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자신에게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간섭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타인과 관련된 영역에서 타인의 이해관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제재를 가해야 한다.²⁾ 이 주장들에서 연구자들은 어떠한 이유로 밀이 타인과 관련된 토론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밀이 주장한 양심, 생각, 그리고 표현의 자유-비록 표현의 자유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는 상식적으로 타인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 그러나 토론이라는 행위는 당연히 몇몇 사람이 같이 동참하여야 하므로 타인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밀은 타인과 관련된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는 자유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은 토론의 자유가 사람의 개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밀은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의견을 표현하고 출판하는 자유는 아마도 다른 원칙에 속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의 자유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자신에 관련된 문제이다. 또한 생각의 자유로부터 개별성(individuality)이 나타난다. 생각의 자유가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informed choice)”^(16쪽)을 내리기가 어렵다(Mill, 1859/2013).

사람들이 해당 질문에 대한 모든 의견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생각의 자유는 쓸모가 없다. 생각들을 대조하거나 비교 할 수 있는 토론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자신들의 지력을 확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생각의 자유와 토론의 자유는 분리될 수 없다.”(Mill, 1859/2013, 15쪽).

1) 본 논문은 서병훈의 자유론 번역본(2013)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2) 밀은 자유론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중 연설이나 저술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굶주림에 시달려 흥분한 상태의 군중을 상대로 곡물 도매상을 지목하면서 “여러분이 굶주리는 것은 저런 자들의 착취 때문”이라는 식의 표현은 타인의 이해에 해를 끼치는 경우이다.

밀의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기존 논문들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참여 수단으로서의 언론 자유(윤성현, 2011), 밀의 공리주의와 개성의 관계에서 자유의 관계(김희준, 1983; 정선영, 2015), 진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를 주장한 조맹기(1995)의 연구, 그리고 본 논문과 관련이 있는 밀의 토론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를 한 이호규(2014)와 김지후(2015) 등의 연구들이 있다. 이호규는 밀과 해롤드 이니스 논의의 공통점을 대화의 중요성에서 찾고 있다. 더불어 김지후의 연구는 밀의 토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토론의 자유의 필요성을 밀이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이 토론의 자유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근거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밀은 생각의 자유와 토론의 자유가 사람의 개별성을 높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밀은 개별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다음 부분에서는 당시의 사회 상황에서 개별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밀의 논의와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밀의 논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다수의 횡포와 노예근성의 동조 문제

밀은 국가의 공식적인 권력보다는 사회의 비공식적인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개인의 자유를 저해하는 최대의 원인으로 사회의 다수가 지지하는 지배적인 여론과 관행이 여타 소수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획일화하는 압력으로 보았다. 밀은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에 작동하는 수직적인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호 영향을 주는 “수평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자유”(41쪽)를 강조하였다(齋藤純一, 2005/2011).

밀은 정부에 의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다수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있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언급하였듯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다수의 의견이 바로 진리라는 등식으로 여타의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현상에 대해 밀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 다수의 의견을 진리로 여긴다면 소수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수의 암묵적인 강요에 무조건 동조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동조 현상이 노예의 근성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밀은 자신의 판단을 남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노예근성이라고 지목하였다.

이러한 동조 현상이 미국에서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19세기 영국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상업주의 특징을 가진 사회에서도 목격되고 있음을 밀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당시의

사람들의 성격에서 제일 나쁜 점은 “자본의 축적을 위한 이기심”(p. 31)이라고 지적하였다(1829년 12월 31일 Gustave d'Eichthal 에게 보낸 편지, C.W.XII).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였을 때 상업적인 정신이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나아가 상업주의가 당시 사람들의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하였다. 밀은 문명(Civilization)이라는 글에서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는 능력을 배운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사람들 간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사회 제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람들도 발전한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사회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감소한다(Mill, 1836)³⁾.

밀은 중요한 소비자로 등장한 중산층의 목소리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업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자연스럽게 개인들의 영향력보다는 집단의 영향력이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커다란 힘을 행사하게 되었다(Mill, 1836). 상업주의의 영향과 같은 맥락에서 밀은 자유론에서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다수의 의견이 ‘진정한 여론’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해야 한다. 이렇게 단순히 숫자의 힘으로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배는 개인들의 개별성을 위협한다. 다른 사람들의 제한이 없는 권력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체성(self-authorship)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지배는 권력 혹은 위협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정부와 같은 권력기관에 의한 명시적인 지배보다도, 밀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조건들이 암묵적으로 사회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만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해악 원리는 사회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의견이 진리라고 인식하면서 타인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제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의 다수 권력에 의한 개인 자유의 억압으로 인해 사회는 정체 상태가 되면서 활력을 잃게 된다. 그러한 정체 상태를 피하고자 밀은 개인들의 개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개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현상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

3) 본 논문에서의 밀의 저작물은 1960년에 설립된 Liberty Fund의 Online Library of Liberty(<https://oll.libertyfund.org>)에서 접근 가능한, 1963년 토론토 대학 교수인 Robson, J. M.이 편집한 총 33권의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을 참고하였다. 해당 저작물의 쪽수는 인터넷에 있는 쪽수를 언급하였다.

를 밀은 ‘노예의 근성’이라고 지적하였다. 개인이 주체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언급하면서, 밀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권력을 제한하고 분할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억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밀은 〈자유론〉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개별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더불어 밀은 〈자유론〉에서 개인의 개별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연구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경고하면서, 밀은 〈자유론〉에서 동조주의, 즉 순응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별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개별성은 무엇인가? 둘째, 밀은 개인의 개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론의 자유, 특히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형식의 토론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밀이 주장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형식의 토론 자유와 개별성 제고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3. 인간의 본성과 개별성의 중요성

1) 생각의 다면성의 필요성

많은 계몽사상가와 달리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독립된 저술을 남기지는 않았다. 따라서 밀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밀의 저작물들에 파편적으로 언급되어있는 주장들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밀의 여러 저작물을 통해 밀이 인간들의 본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왜 개별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밀은 〈자서전〉에서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들은 “부분적인 진리(half-truth)”(p. 127)에 불과하다고 말한다(Mill, 1873).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테가 주장한 “생각의 다면성(many-sidedness)”(p. 127)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Mill, 1873). 밀이 〈자서전〉에서 언급한 부분적인 진리와 생각의 다면성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밀이 언급한 18세기와 19세기 철학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밀은 “자기 자신의 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철학을 하고 토론을 하는데 합당한 방법은 18세기의 철학과 반대여야 한다.”(p. 42)라고 주장하였다(Gustave D'Eichthal에게 1839년 11월 7일에 보낸 편지, C. W. XII). 18세기의 철학은 무엇이고 왜 19세기 철학은 18세기 철학의 방법을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세기의 철학에 대한 밀의 논의는 자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벤담과의 결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밀은 벤담이 자신의 접근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매우 사악한(peculiar evil)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라고 무시를 하면 진리에 다가가는 데 문제가 있다(Mill, 1859/2013). 밀은 덧붙이기를, 만약에 자신의 영역에서 더 이상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진리라고 여기면서, 더 이상 다른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Mill, 1859/2013). 밀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있는 신념들을 비교/대조함으로써 자신의 지력을 심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시의 합리주의자인 벤담과 낭만주의자인 코올리지(Coleridge)는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철학적 논의를 하였다. 밀은 두 학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밀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들의 방법들과 생각들이 서로 보완”(pp. 179-180) 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Mill, 1840). 그럼으로써 각각의 철학적 논의가 완전히 가깝게 될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대조되는 의견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밀은 자신과 다른 의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이 벤담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주장하였다.

2) 인지의 오류 가능성

밀은 다음과 같은 것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수학의 경우에는 하나의 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 현상과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입각하여 해석을 하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Gustave D'Eichthal에게 1829년 10월 8일에 보낸 편지, C. W. XII). 이러한 이유로 비록 현명하고 지력이 뛰어난 사람도 자신의 해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긴 실수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누구도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밀은 자신의 에세이인, 교회(The Church(1828))]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만약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최고조의 지식 업적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다.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Mill, 1828, p. 425).

진리의 반쪽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 인식의 한계가 사람의 지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Gustave D'Eichthal에게 1829년 11월 7일에 보낸 편지, C. W. XII). 이러한 맥락에서

밀은 검열에 대한 자신의 반대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간은 오류를 범하는 존재이다. 즉 인간은 사물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과거에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이 회전한다는 천동설을 믿었으며, 파라오는 신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현재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미래에 거짓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할 수 없다(Mill, 1859/2013). 밀의 두 번째 전제는 우리는 자신들의 잘못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과 비판적인 토론으로 우리의 의견들을 개선할 수 있다. 우리의 불완전한 경험 혹은 논리의 결함으로 인해 우리가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오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은 우리들이 인생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을 근거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의견을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지적”(50쪽)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Mill, 1859/2013). 우리가 토론을 통해 자신의 그릇된 의견을 시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인류의 지식은 담보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밀은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의 자유가 항상 진리를 담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유로운 토론이 우리 자신의 실수를 고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50쪽)이라고 역설했다(Mill, 1859/2013).

권력자들이 정권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들이 항상 옳다고 자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은 오류를 저지르는 존재이다. 따라서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무오류성(infallibility)”(103쪽)을 전제로 하고 있다(Mill, 1859/2013). 반대가 없는 진리라고 여겨지는 의견은 자신의 생명력을 잃으면서 도그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종교는 초기에는 기존의 권력들과 당시의 믿음을 상대로 자신들을 변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생명력이 있고 절박하다. 그러나 새롭게 나타난 종교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중요한 믿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초기의 신선함보다는 기계적인 모습”(81쪽)으로 변하게 된다(Mill, 1859/2013). 따라서 통설 혹은 믿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대 의견을 항상 고마워해야 한다. 일례로 그리 관대하지 않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심지어 성인을 임명하는 의식에서도 소위 “악마 대변자의 온갖 반대 이야기”(54쪽)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는 비록 훌륭한 사람이라도 악마로부터 반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성열 가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Mill, 1859/2013). 만약에 중요한 진리에 대해 비록 반대자가 없더라도 반대자가 있을 것이라 상정을 하고, 가장 능숙한 악마 대변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만큼 대상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

조되는 의견들과 자신들의 의견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인지의 편향성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온 의견들과 현재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절대적인 사실(Mill, 1866, 1867)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과거부터 내려온 의견들과 감정들이 당시 습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어떠한 의심도 없이 받아들인다.⁴⁾ 밀은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견들과 같은 상투적인 말들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람에게 그리고 사회에는 편향(bias)이 존재한다. 밀은 “편향은 사람들에게 실수를 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이게 한다.”(pp. 736-737)고 주장한다(Mill, 1843). 이러한 편향은 사람의 본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는 허위의식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편향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류의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으로 형성된 어느 특정 부분을 선호하는 경향이 계속해서 수많은 철학적인 이론들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철학적인 이론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념들을 위한 전제들을 제공하였고, 선호하는 감정을 정당화하였다(Mill, 1843). 따라서 지적인 면에서 매우 출중하여 진리의 빛에 접근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전반적인 성향으로 인해 그릇된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Mill, 1843). 이러한 측면에서 밀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괴테의 다양한 측면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다.

논리 그 자체는 진리가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고 유지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의 오류에 대한 성찰과 분석을 통해, 편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릇된 철학의 기반이 상쇄될 수 있다. 밀의 논리의 오류 철학은 베이컨이 신세계(Novum Organum)에서 주장한 극장의 우상 논의에 영향을 받았다. 밀은 베이컨의 다양한 철학적 정설들이 허구적인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무대라고 설명한 극장의 우상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밀은 극장의 우상 논의와 같이, 그릇된 철학적 이론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Rosen, 2013).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하는 이유로서, 밀은 당시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과정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당시에 대부분, 특히 정치와 같은 공공 영역에서 나타나는 의사 결정의 대부분이 “마음에 드는지(likings)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지(dislikings)” (28쪽)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Mill, 1859/2013). 사회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들의 대부분

4) 밀은 플라톤을 힘들게 만든 것은 소피스트들이 아니라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상식이라고 주장하였다(Mill의 Grote's Plato에서).

이 해당 의견이 자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었다(Mill, 1859/2013). 혹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의견에 더욱 호감을 느끼고 있는지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었다(Mill, 1859/2013). 밀은 우리들의 판단은 단순히 호불호가 아니라 검증된 이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은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담론을 가능하게 하지만, 더불어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이성의 한계를 사람들이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인식의 편향과 논리의 오류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의견에 대해 끊임없이 검증해야 한다.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견은 죽어있는 도그마에 불과하다. 밀은 무엇보다도 검증의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당시에 밀이 목격하였던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특징은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보다는 일방적인 지식의 흐름이 지배적이었다.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의견들을 앞에 내세우고 마치 전쟁을 하듯이 승리를 위해 거침없이 달리는 전투사들 간의 논쟁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인류가 고안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극찬한 대화법의 존재 이유를 〈자유론〉에서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4) 개별성의 중요성

밀의 인간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보편적인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인간의 독특성에 대한 밀의 시각이 바로 그의 스승인 벤담과 아버지인 제임스 밀과의 결별을 갖고 왔다. 둘째,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밀이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개별성은 사회계약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립되어 있고 원자화된 인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자신의 개별성을 유지/발전시킨다. 따라서 밀의 개별성은 바로 사회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밀은 개별성과 개인주의를 구별하고 있다. 1820년대 중반 생시몽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사회의 해체를 묘사하기 위해 개인주의를 사용하였다. 당시의 개인주의는 경멸조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고립된 개인, 사회 해체, 그리고 원자화”(p. 79)를 의미하는, 즉 사회의 “추악한 개인주의”(p. 79)를 의미하였다(Swart, 1962). 밀은 당시의 개인주의와 개별성을 구별하기 위해 다양하고 긍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자발성, 다양성, 독창성, 실험 그리고 에너지 등 이러한 단어들의 집단이 개별성을 정의하고자 사용되지는 않았다. 다만 개별성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밀의 개별성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그리 용이하지는 않지만, 개별성은 개인들의 자기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밀은 〈자유론〉의 서문에서, “최고의 원리는 인간의 발전이 최대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이 절대적이며 본질적이다.”라고 흄볼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책의 제1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구스트(August)에 의하면 밀은 자신의 모든 논의에서 상상의 사람(imaginary person)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인간이 자신의 완벽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과연 어떠한 유형의 인간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이상적인 인간상”(p. 10)을 항상 그리고자 하였다(August, 1975). 밀의 개별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밀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 본성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별성 계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밀은 인간의 발전에 대한 잠재력이 인간 본성에 내재하여 있으며, 이점이 바로 인간 본성이 항상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벤담이 공리주의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특정한 능력과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밀은 피력하고 있다.

밀은 인간의 본성이 항상 일정하며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의 벤담의 공리주의가 많은 결점을 갖고 있으며 종국에는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본성은 문화마다 시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많은 이론가가 2,000년 동안 인간 본성에 대한 몇 가지 안 되는 보편적인 법칙을 알아내고자 매우 바쁘게 노력하였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인간 본성의 다양성을 간과하였다.”(Mill, 1833, p. 120). 개인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 이미 주어진 욕구 그리고 필연성을 전제로 하는 개인의 개념 등이 벤담이 주장한 사회 이론의 중요한 부분이다.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적인 본성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욕구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사회 장치와 정치 제도가 무엇인지를 강구하고자 하였다.

밀은 벤담이 상정하고 있는 인간 본성은 인간의 사회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았다. 사회는 계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는 동안에는 공존을 위해 규칙을 준수하며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Mill, 1859/2013). 벤담이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인간 행위의 근원을 심리학적인 쾌락주의로 환원하여 설명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밀은 설명하였다. 효용과 비효용을 고통과 즐거움의 기본 감정에만 축소함으로써 매우 단순하고, 이 점이 밀이 생각하기에 벤담의 공리주의의 커다란 약점이라고 보았다. 밀은 “인간 본성에 대한 분석가로서 나는 벤담을 매우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p. 12)라고 주장하였다(Mill, 1833). 사람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는 생각이 밀을 괴롭혔으며, 이에 밀은 벤담과 자신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이 제시한 공리주의를 수정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기울였다.

밀은 또한 차별성과 자기표현을 높게 평가하는 낭만주의 작품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인간 본성은 영원하지 않으며 변화무쌍하다. 인간 본성을 변화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낭만주의자들은 개인이 독특하고 다채롭고,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개성을 갖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낭만주의는 사람들 각각을 비교할 수 없으며, 사람들의 재능은 매우 다양하며,

개인은 자신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모든 주제가 낭만주의자들의 작품에 녹아있었다. 밀은 이러한 낭만주의자들의 주장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각색을 하였다.⁵⁾ 낭만주의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밀은 사람은 열려있는 개성을 갖고 있고, 다양한 욕구와 동기가 있는 존재(Mill, 1859/2013)라고 자신의 논의를 발전시켰다. 밀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의 변화 가능한 속성들에 친숙하여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논리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이 적극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Mill, 1843). 밀에 의하면, 벤담이 간과하였던 중요한 정신적인 감정들은 “명예심, 인간의 존엄성,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질서에 대한 갈망, 모든 것들에서의 조화와 일관성, 권력욕, 행위와 사랑에 대한 욕구”(p. 913) 등이다(Mill, 1838). 이러한 감정들 이외에, 밀은 “자유를 사랑하고 개인의 독립을 요구하며 걱정과 침잠에 대한 갈망”(p. 212)을 덧붙이고 있다(Mill, 1861). 여기서 밀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감정을 언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은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을 강조한 벤담과는 달리, 밀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다양한 마음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밀은 인간의 능력에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 즉 능력 이외에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인간의 능력은 인위적으로 훈련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Mill, 1874). 밀은 인간 본성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인간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밀이 개별성의 계발을 중요하게 강조한 이유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과 사회적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축적하면서, 결과적으로 인간 문명의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Mill, 1874). 즉, 밀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중국에는 사회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벤담과 제임스 밀은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에 밀은 바로 인간의 능력 계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밀은 〈자유론〉에서 개별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5) 존 스튜어트 밀은 앞에서의 생각의 다면성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합리주의와 낭만주의를 결합하고자 하였다. 합리주의에서 주장한 첫째, 사람들의 지식 발전과 사회의 발전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따라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불평등을 초래한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사람들의 마음과 논리가 지식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반면에 낭만주의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항상 변화가 가능하며, 따라서 저마다 독특함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반되는 사상을 결합하기 위하여 밀이 〈자유론〉에서 개별성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4.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대화법과 개별성의 관계

1) 언어와 생각의 관계: 밀의 언어관

밀이 주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나아가 토론의 자유와 생각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자유를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존 로크는 최소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공공적인 표현의 자유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Goldie, 1997). 그러나 밀은 로크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이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밀의 저작물들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답을 구할 수 있다. 즉, 이 질문에 대한 밀의 암묵적인 대답은 활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는 언어의 실천적인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연구자들은 판단한다. 그는 자서전에서 “평범한 영국 사람 중에서, 자신들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 ... 이러한 습관이 그들의 지적 능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p. 89)고 말한다(Mill, 1873).

더불어 밀은 그로테(Grote)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의 공공 연설(public speaking)의 독특한 전통으로 인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들이 남들과 다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여타 나라의 사람들이 지적으로 퇴보를 하였을 때도 그리스 사람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맘껏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능하게 한 생산적인 지성을 가질 수 있었다(Mill, 1846). 밀은 영국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비록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혹은 자신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적인 능력, 즉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개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생각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밀은 일반적인 계몽 사상가들 특히, 로크와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인다. 일반적인 계몽 사상가들은 철저하게 이원적인 사고를 견지하였다. 즉, 생각은 언어적인 표현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원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생각은 언어에 의한 표현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Forster, 2018). 그러나 밀은 생각은 언어적인 표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리는 생각의 예술이다... 언어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논리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된

다...(중략) 추론은 항상 단어들이라는 수단에 의해 나타난다. 이 이외의 방법은 없다(Mill, 1843, pp. 19-21).

밀은 생각과 표현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논리를 피력하고 있다. 생각의 유형은 전적으로 언어적인 표현에 의해 결정된다. 언어는 생각이 언어 안에서 또한 언어에 의해 그것의 모양을 갖 추는 형상이다. 언어는 인간의 모든 인식의 한계와 모습을 결정한다. 밀이 〈자유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생각의 능력은 언어적인 표현의 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자유로운 생각을 위해서는 당연히 언어를 통한 표현, 즉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논쟁(eristic)과 대화법(dialogue)의 차이

밀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강요를 직접적인 강요와 간접적인 강요의 두 가지 경우로 논의하고 있다. 밀은 〈자유론〉에서 직접적인 강요보다는 간접적인 강요의 폐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즉 밀은 사회적 감정과 의견들이 개인들의 의견, 생활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여론의 힘으로 보편적인 의견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향들과 그것들의 폐해를 논하고 있다.

밀은 〈자유론〉에서 이제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강요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사회적인 압제가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주목하였다. 사회적인 압제가 없는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과연 무엇인가? 밀은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서 자유로운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밀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로운 대화는 무엇인가? 자유로운 대화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말들이 교환되어야 하는가? “싸움하는 것보다 서로 간의 말의 교환이 더욱 바람직하다. 더불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식으로 말이 교환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Chambers, 1996, p. 7). 밀은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사회를 특징짓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당시에 관찰되었던 사회적인 압력, 즉 다수의 횡포가 지배적일 수 있는 이유를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밀은 19세기 영국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를 부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밀은 〈논리학 체계〉와 〈자유론〉에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탐구 방법은 자의의식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지식을 추구하는 인류가 고안한 여러 방법 가운데 최상이라고 하였다. 왜 밀이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자신의 모델로 삼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에 만연하였던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승리를 위함이었다. 당시의 하원이나 공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클럽을 비롯해 학술지 등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동원된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바로 소피스트의 지식과 소피스트들의 수사학 기법이 주를 이루었다. 밀이 젊었을 때, 아버지인 제임스 밀로부터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논쟁(eristic)과 수사학(rhetoric)의 중요성에 대해 강요를 당하고 교육을 받았다(Hamburger, 1963). 밀은 자서전에서 ‘급진적인 벤담주의자’ 시절에 가입하였던 런던 토론 클럽(London Debating Club)에서 지배적이었던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너무 독단적이라고 비난을 하였다. 급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사상이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외에 어떠한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자신들의 생각을 타인들에게 주입하였다. 비록 무지한 사람들을 계몽하든지, 그들의 사상의 발전을 위하는 등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주입식의 커뮤니케이션은 타인에 대한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Mill, 1873).

밀은 그 어떠한 진리도 사람들에게 주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밀은 밖으로부터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개인들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새로운 진리는 바로 나의 의식 혹은 생각들을 의심하면서 나 자신의 관찰에 의해 나타난다. 따라서 누구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Mill, 1832, p. 331).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찾아야 한다.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얻어진 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얻어진 진리가 바로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의 위엄”(72쪽)이라고 밀은 언급하였다(Mill, 1859/2013). 그렇다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밀은 진리라고 믿는 의견들이 받아들여지고 전달되는 형태에 커다란 관심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들의 지력과 능력의 개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밀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소피스트들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논쟁의 방식과 스스로 깨우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의 차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런던 급진주의자들은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 그들의 논쟁 기술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논쟁 혹은 토론으로 매우 유명하였다. 반면에, 그로테 하우스(Grote’s House)에서의 참석자들에 의해 진행된 커뮤니케이션은 승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다(Mill, 1866). 소크라테스의 대화법⁶⁾에서는 화려한

6) 대화법(dialogue)의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Dialogue는 그리스 단어인 dialogos에서 비롯되었다. logos는 단어의 의미를 뜻하고 있으며, dia는 둘이 아니라 관통함(through)을 뜻한다. 따라서 dialogue는 사람들이 협조하여서

미사여구를 이용하는 말재주는 적합하지가 않다. 말재주는 말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 반면에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청중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화의 모든 참여자는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동등하며 동일한 역할을 한다. 즉,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화자이고 동시에 청자이다. 따라서 자신이 설득할 청중이 없기 때문에 험란한 말재주가 필요 없다. 말재주를 이용한 설득은 화자가 대상으로 하는 청중의 대다수가 동의함을 자신의 실천적인 결과물이자 업적이며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밀이 젊은 시절에 가입하였던 런던 토론 클럽에서는 마치 의회에서 표결하듯이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나누어졌다(Reid & Richard, 2010). 반면에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상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성에 의해 설득을 하고 설득을 당한다. 대화법에서는 찬반 투표 방식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대화법에서는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들의 생각하는 방법을 변경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찬반 투표가 필요 없다(Mill, 1859/2013).

대화법을 위해서는 상호 존경이 필요하며 참가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신들의 의견을 바꿀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대화에서는 화려한 수사나 웅변이 필요 없다. 밀이 젊은 시절에 언급하였듯이, 주목을 얻고자 하는 단어들은 논리적인 추론보다는 감정을 움직여야 하는 관계로, 웅변이나 수사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사학에서는 청중들의 감정을 움직임으로써 청중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행동을 하게 한다(Mill, 1833). 존 스튜어트 밀의 1829년 런던 토론 클럽의 탈퇴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의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오용에 대한 비판과 직접 연결된다. 제임스 밀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타인의 오류와 허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젊은 밀은 진정한 대화법은 말을 치장하여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밀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피력하기를, 아버지가 사용한 철학적인 방법에는 수많은 오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밀은 자신이 믿는 진리를 타인에게 주입함으로써 나타나는 선형적인 지력의 성장을 최선이라 여겼다(Mill, 1873).

그레고리 블라스토스(Gregory Vlastos)는 제임스 밀과 벤담과 같이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당신이 주장하는 바가 진리이건 상관없이 논쟁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방법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뜻한다. dialogue의 정신은 사람들은 각자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의견들을 대조하고 수정함으로써 협력하여 진리를 찾아가고자 함이다.

이 아니고, 단지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게 이기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을 목적”(pp. 29-30)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Vlastos, 1983).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찬성과 반대라는 결과를 위해 존재하는 반면에 소크라테스 대화법에서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생각의 결과물인 의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라 ‘생각의 과정’을 재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 전제를 하고 있다. 즉 자신의 의견에 대한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있다. 대화법에서는 의견의 진위보다는 각 의견에 대한 논리적인 전제의 타당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전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화법에서는 왜 그러한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한다. 즉 대화의 참가자들이 각자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을 때, 참가자들이 함께 그러한 의견을 갖게 된 논리적인 이유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의 내용에 주목한다. 반면에 대화법은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생각의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제시하는 자신의 의견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과거 경험, 타인들과의 교류, 혹은 해당 주제와 유사한 주제에 대한 과거 자신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의견이 생성되기 때문에 대화법은 왜 그러한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대화법을 통한 개별성 제고의 필요성

밀은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연구하면서 개별성 개념을 발전시켰다(Urbinati, 2013). 밀은 소크라테스식의 탐구가 개인의 자의식을 일깨우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밀은 소크라테스의 업적을 알게 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결별을 한다. 밀은 소크라테스 대화법이 모든 사람의 경험들을 무시하는 추상적인 도덕적 탐구라고 간주한 벤담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찬양하였다. 소크라테스의 격언인 “너 자신을 알라”는 밀에게는 자신의 실천 행위”(p. 50)를 의미한다(Urbinati, 2013).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경험과 다른 사람들과의 다양한 교류의 “인생에서의 수많은 실험(experiments of living)”(110쪽)을 통해 자신의 결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Mill, 1859/2013). 밀이 강조하고 있는 자신의 탐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한 자신의 의견을 도덕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솔직하고 열려있는 대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가능하게 한다(Urbinati, 2013). 밀의 개별성의 개념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원자화된 개인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수많은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개별성은 독립된 개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사회성

의 접점이다.

밀은 마치 운동 경기와 같이 점수를 많이 올려 결국에는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형태의 토론을 매우 경계하였다. 한 사람에게는 진리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다(Himmelfarb, 1974). 따라서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의 침체를 지양하고 발전과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떠한 의심도 없이 따라가고 믿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지력을 활발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얕은 오로지 내부에서 온다. 밖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질문이며 그렇지 않으면 단지 권위에 불과하다.”(Mill, 1832, p. 333). 이러한 측면에서 밀은 고대 그리스의 대화법을 찬양하였다. 대화법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그러면서 당시의 모든 교육을 주입식이라고 비난하였다(Mill, 1832).

주입식 교육에 대한 밀의 비난은 자신의 삶에서 비롯되었다. 밀은 〈자서전〉에서 자신의 1820년대의 삶을 극단적인 벤담주의적인 삶이라고 지칭하였다(Mill, 1873). 벤담과 더불어 밀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글을 발표하여 일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까지 설득을 시켜야 한다고 보았다(Hamburger 1963). 제임스 밀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설득이었다. 즉 마치 고매한 선생님이 우매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설교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따라서 제임스 밀은 신문과 공공 간행물에 정부의 오류를 비판하는 글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Hamburger, 1963). 제임스 밀은 타인을 설득하는 태도를 이룬 밀에게 강요를 하면서, 수많은 글을 신문이나 공공 책자에 투고하도록 종용하였다. 확실히 존 스튜어트 밀은 1820년대 동일한 주제에 대해 비슷한 글을 발표하였다. 예를 들면 밀은 연속적으로 유사한 글을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종교적인 관용과 명예 훼손법에 대해 2년에 걸쳐서 9편의 글을 발표하였다.⁷⁾

그러나 밀은 자신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한 후에 제임스 밀과 벤담의 입장을 지적하기 시작하였다. 밀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신은 마치 기계와 같이 아버지의 주입식 교육에 의해 훈련됐기(manufactured) 때문에 자신의 고유한 생각이 없었음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교육과 자신이 취했던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 19세기 당시의 다수에 의한 횡포가 나타났다고 보았다(Mill, 1873). 즉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속에

7) Mill. Newspaper Writings, C.W. XXII, 6, 9-15, 21-5, 30-34, 42, 46-8, and 91-5.

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타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동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신의 의견이 없이 타인의 의견에 동조하다 보니 마치 타인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의견이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자신이 믿고 있는 의견의 정당성을 위해서 갖은 수단을 이용하여 방어하고자 한다. 그러나 밀은 자신의 런던 토론 클럽에서의 경험과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의 설득 철학을 반대하면서 그 어떠한 의견도 전적으로 옳고 전적으로 그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나는 사람들이 의견의 충돌(collision of opinions)이라고 부르는 자유로운 토론(free discussion)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다. 다만 사람들 마음속에 진리는 심어지고 싹이 난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갖고 자극을 준다고 해도 마치 부싯돌에서 불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나는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나는 익숙하다(T. Carlyle에게 1883년 5월 18일 보낸 편지, C. W., XII, p. 153).

밀이 벤담의 공리주의와 결별한 이후 밀이 추구하면서 얻은 결과물은 바로 다음과 같은 신념이다. 개혁의 정치에 사람들이 자신의 오류 가능성과 자신들이 이상적이라고 믿고 있는 생각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하다. 모든 사람은 세뇌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더불어 그런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G. D'Eichthal에게 1830년 3월 6일 보낸 편지, C. W., XII). 밀은 개인이 남에게 무조건 의지하는 노예근성에서 벗어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옳다고 믿는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으로써 대화법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관심을 보였다. 동일한 주제에 관해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식이 과연 온전한 진리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서도 논의하였듯이, 밀은 진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검증 절차는 타인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검증 절차를 통해 개인의 개별성이 제고될 수 있다. 밀은 벤담과 자신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신념만이 진리라는 매우 편협한 사고방식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5. 결론

밀은 자기 자신에게 관련된 영역은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타인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왜 밀이 타인의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토론에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밀은 벤담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인의 행복은 바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밀은 기존의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유론〉에서 “진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영원한 이익(permanent interests of human being as progressive being)”(34쪽)을 최고의 덕목으로 설정하고 있다(Mill, 1859/2013). 사람은 항상 자신의 노력으로 변할 수 있고 변해야만 한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내려야 할 판단을 남에게 위임하는 노예근성은 다수가 자행하는 폭력에 그 어떠한 저항 없이 굴종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개별성을 지속해서 제고시킴으로써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밀은 당시 사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성의 발전을 최고의 덕목으로 상정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논의는 밀은 개별성과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중심으로 자유 원리에 따라 전개하였다.

밀의 자유에 관한 논의에서 개별성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시 고립되고 원자와 같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부분의 고전적 자유주의자와 달리, 밀은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별성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인 다원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름을 존중하는데 토대를 제공한다. 개인들 각자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위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 능력의 제고는 타인과의 무한한 교류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밀의 개별성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점점의 역할을 한다. 개별성을 높이는 작업은 개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연결성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개별성을 중요한 논의의 주체로 상정하면서 밀은 개인과 타인들과의 점점을 토론의 장에서 찾아가 하였다.

누구도 완전한 진리를 알 수 없다. 즉 진리의 부분을 갖고 마치 자신이 완벽한 진리를 알고 있다는 마음은 오만에 불과하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의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신의 지력이 향상하고, 남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밀이 권유하고 있는 비교 및 수정의 작업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혹자는 밀이 주장한 표현의 자유가 마치 우리가 달성해야 할 최상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밀의 논의에 근거하였을 때 표현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병훈(2013)은 〈자유론〉해제에서 밀은 자유 그 자체를 매우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나, “원칙

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방향성을 전제로 한 자유”(239쪽)를 제시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Mill, 1859/2013). 밀이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진보하는 개인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그러한 표현을 중심으로 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향성을 가진 표현의 자유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지력과 판단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이며, 이러한 필요조건이 열매를 맺기 위한 사회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나타난다. 밀은 생성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형상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오류와 편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리 추구는 가능하지 않다. 앞에서 논의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무엇이 진리인지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토론의 자유가 거부된다면, 그 어떠한 의견도 반대되는 다른 의견들과 비교/검증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유로운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통해 살아있는 진리를 추구할 수 없게 된다. 자유로운 토론은 생각하는 힘을 제고시키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밀은 〈자유론〉과 이외의 저작물에서 사회의 획일화를 지양하고, 개인의 개별성을 충분히 제고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소피스트적인 설득의 토론이 아니라 과정 지향적인 열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인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토론에서 찾고자 하였다. 밀은 지식을 찾는 것보다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타인의 그것들과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토론을 통해 개별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았다.

References

- August, E. (1975). *John Stuart Mill: A mind at large*. New York: Scribner.
- Chambers, S. (1996). *Reasonable Democracy: Jürgen Habermas and the Politics of Discours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Cho, M. K. (1995). Mill's View on the Speech: Speech as the institute of Educ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33, 229-266.
- Forster, M. N. (2018). *Herder's philoso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ie, M. (1997). *Locke: Political Essay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burger, J. (1963). *James Mill and the Art of Revolu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immelfarb, G. (1974). *On Liberty and Liberalism: The Case of John Stuart Mill*. New York: Alfred A. Knopf.
- Jeong, S. Y. (2015). A Study of Mill's Concept of 'Liberty' and his Theory of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J. (1983). A Study on John Stuart Mills doctrine of liberal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 Kim, J. H. (2015). The freedom of Mill and Modern Freedom. *Yonsei Journal of Public Governance & Law*, 6(2), 95-118.
- Lee, H. K. (2014). The bias of Communication and Truth: A Discussion on both Harold Innis and John Stuart Mill.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5), 311-332.
- Mill, J. S. (1828). *The Church*,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XXVI.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xvi-journals-and-debating-speeches-part-i>
- Mill, J. S. (1832). *On Genius*.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I.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i-autobiography-and-literary-essays>
- Mill, J. S. (1833). *Remarks on Bentham's philosophy*.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X.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essays-on-ethics-religion-and-society>
- Mill, J. S. (1836). *Civilization*.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XVIII. Retrieved from

<http://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viii-essays-on-politics-and-society-part-i>

Mill, J. S. (1838). *Bentham*.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X.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essays-on-ethics-religion-and-society>

Mill, J. S. (1840). *Coleridge*.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X.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essays-on-ethics-religion-and-society>

Mill, J. S. (1843). *System of Logic*.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VII.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vii-a-system-of-logic-part-i>

Mill, J. S. (1846). *Grote's History of Greece I*.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XI.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i-essays-on-philosophy-and-the-classics>

Mill, J. S. (1861). *Utilitarianism*.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X.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essays-on-ethics-religion-and-society>

Mill, J. S. (1866). *Grote's Plato*.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XI.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i-essays-on-philosophy-and-the-classics>

Mill, J. S. (1867). *Inaugural Address at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XXI. Retrieved from <http://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xi-essays-on-equality-law-and-education>

Mill, J. S. (1873). *Autobiography*. In J. Bennet (Ed.). Retrieved from <https://www.earlymoderntexts.com/assets/pdfs/mill1873e.pdf>

Mill, J. S. (1874). *Nature*. The 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X. Retrieved from <https://oll.libertyfund.org/titles/mill-the-collected-works-of-john-stuart-mill-volume-x-essays-on-ethics-religion-and-society>

Reid, T. W., & Richard, M. M. H. (2010). *The Life, Letters, and Friendship of Richard Monckton Milnes, First Lord Houghton, Volume I*. New York: Cassell.

Rosen, F. (2013). The Philosophy of Error and Liberty of thought: J. S. Mill on Logical Fallacies. In K. N

Demetriou & A. Loizides (Eds.), *John Stuart Mill: A British Socrates* (pp. 17-48). UK: Palgrave Macmillan.

Swart, K. W. (1962). Individualism in the Mid-Nineteenth Century(1820-1860).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23, 77-90.

Urbinati, N. (2013). John Stuart Mill, Romantics' Socrates, and the Public Role of the Intellectual. In K. N Demetriou & A. Loizides (Eds.), *John Stuart Mill: A British Socrates* (pp. 49-74). UK: Palgrave Macmillan.

Vlastos, G. (1983). The Socratic Elenchus.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1, 27-58.

Yoon, S. H. (2011). J. S. Mill on Liberty and Democr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최초 투고일 2019년 8월 6일

게재 확정일 2020년 3월 30일

논문 수정일 2020년 3월 31일

부 록

- 김지후 (2015) 밀의 자유와 현대의 자유.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6권 2호, 95-118.
- 김희준 (1983).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성현 (2011). <J. S. Mill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호규 (2014). 커뮤니케이션 편향과 진리: 해롤드 이니스와 존 스튜어트 밀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311-332.
- 정선영 (2015).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개념 및 교육론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맹기 (1995). 밀의 언론관: 교육기구로서의 언론, <한국언론학보>, 33호, 229-266.
- Mill, J. S. (1859). *On Liberty*. 서병훈 (역) (2013).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울: 책세상.
- Saito, J. (2005). *Freedom: Isaiah Berlin, Hannah Arendt, Michel Foucault, John Rawls, Judith Shklar, Amartya Sen, Friedrich Hayek*. 이혜진 · 김수영 · 송미정 (역) (2011). <자유란 무엇인가: 벌린, 아렌트, 푸코의 자유 개념을 넘어서>. 서울: 한올아카데미.

존 스튜어트 밀의 개별성 제고를 위한 대화 형식으로서의 토론의 자유

박혜경

(동국대학교-서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수료)

이호규

(동국대학교-서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생각의 자유와 토론의 자유는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밀의 자유론의 원칙은 자기 자신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타인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토론의 자유가 타인에 관련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밀의 공리주의의 원칙인 개별성 제고와 토론의 자유의 관계에서 바라보았다. 밀이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진보하는 개인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그러한 표현들을 중심으로 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향성을 가진 표현의 자유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지력과 판단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이며, 이러한 필요조건이 열매를 맺기 위한 사회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밀은 사람들 간의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형식의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였다.

핵심어: 개별성 제고, 토론의 자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